

# 카운터테너 루이스 초이가 선사하는 휴식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아름다운 작은음악회는 일상의 심포가 필요한 이들에게 휴식을 안겨주는 음악회로 사랑받고 있다. 율해도 클래식, 팝, 월드뮤직 등 다양한 컨셉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오는 25일 선보이는 율해 두 번째 아름다운 작은음악회 무대는 카운터테너 루이스 초이다.

루이스 초이는 남성적인 다이내믹과 여성적인 섬세함이 공존하는 신비의 목소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카운터테너다. 오페라 가수, 팝페라 가수,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의 팔색조 같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스트라토(Castrator)는 남성이면서도 여성의 음역을 노래하는 성악 파트로 중세 이후 여성을 억압했던 역사가 빛어낸 '비극'의 산물이다.

국내에는 영화 '파리넬리'를 통해 그 스토리가 충격적으로 알려진 바

## 광주문예회관 아름다운 작은음악회 'THE STORY'

25일 담백하고 강렬한 신비의 목소리 만끽

다. 비발디, 헨델 등의 바로크 오페라 붐에 힘입어 17, 18세기 오페라의 주역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카스트라토가 19세기 초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이들 대신 카운터테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아직도 다소 생소한 영역이지만 루이스 초이는 '여성의 소리를 내는' 카운터테너를 대중에게 알린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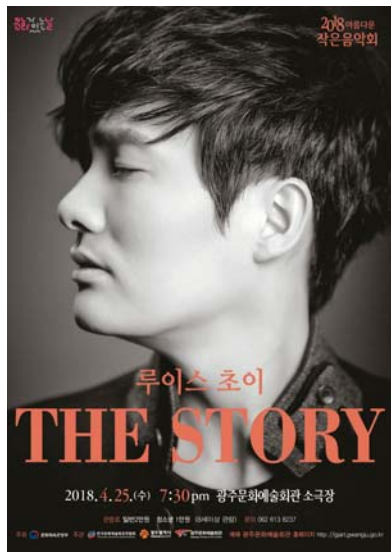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루이스 초이 THE STORY'라는 제목에 걸맞게 독일로 유학을 떠나 혼자 꿈을 키워갔던 시절의 외로움, 뒤셀도르프 국립극장에서의 주역으로 데뷔하며 얻은 자신감, 한국에 귀국해 카운터테너라는 생소한 영역을 알려나가는 열정, 그리고 뮤지

컬 '파리넬리' 주역으로 활동할 때의 감동 등을 스토리로 풀어낸다. 아티스트로서의 삶의 각 장면들을 장식한 노래들을 사이사이 들려줄 예정이다.

뮤지컬 '파리넬리'에서 들려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날 울게 하소서', 헨델 오페라 '알차나' 중 '내게 돌아와 주오'를 비롯해 재즈 '스페인', 샹송 '고엽', 가요 '꽃밭에서' 등 오페라 뿐만 아니라 그의 정규 앨범 수록곡인 '추억'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색다를 무대를 선사한다.

25일 저녁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70분간 진행되며, 문의와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062-613-8237)을 통해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공연 모습.

## 놀이패 신명 '금요 456극장' 상설공연

'언젠가 봄날에' 등 20일부터 대표작 선봬

광주 대표 마당극 단체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은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월상설무대-금요 456극장' (이하 456극장) 상설공연을 진행한다.

456극장은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0년 5월 광주의 상향을 마당극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5·18민주광장의 정체성과 오월정신을 알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주요 공연으로는 놀이패 신명의 대표작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와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을 선보인다.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항쟁의 아픔과 슬픔, 그에 대한 극복을 창작 탈구 소리와 춤 등을 통해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마당극이다.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은 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피와 눈물로 이룬 투쟁의 공동체, 희망과 평화의 공동체를 마당극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광주의 5월 정신이 역동적인 춤과 노래, 재담을 통해 재현된다.

'언젠가 봄날에'는 20일과 27일, '일어서는 사람들'은 5월 4일, 11일, 18일 오후 6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공연된다.

문의 062-527-7295.

/이보람 기자



윤세영 작 '생성지점'

## 무등현대미술관 윤세영 초대전 '생성지점'

무등현대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윤세영 작가 초대전 '생성지점, Becoming Space'를 연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 작가가 이번에 선보이는 '생성지점' 시리즈는 무형인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끊임없이 탐구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로 자유로운 재료를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윤 작가는 세상을 이루는 제 4원소, 물, 불, 흙, 공기인 그것을 전부 통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시간'이라고 가정했다.

현재는 과거 시간과 이어져 있고 미래는 현재를 미묘

하게 복제해 같은 듯 다른 시간을 끊임없이 생성한다. 그 시간은 한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개인이 겪는 각각 다른 경험들이 새로운 향을 이루어 특별한 지점을 만든다.

작가는 그것을 생성지점이라 하며 바로 그곳에 집약된 에너지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7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제22회 광주미술상, 의재 허백련 레지던시 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3-6676.

/이연수 기자

## 원불교 대각대교절 맞아 범등축제

다큐 상영·예술난장 등 21~28일



지나해 열린 원불교 범등축제.

원불교는 교단 최대 경축일인 대각대교절(4월28일)에 즈음해 오는 21~28일 익산 중앙총부 일원에서 범등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범등축제 기간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는 제2회 소태산영화제가 열려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28편을 선보인다.

문화예술작품을 손수 만들어 판매하는 '신용동 예술난장'과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명상차회', 사진전시회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열린다.

대각대교절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1891~1943) 대중사가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를 창교한 기념일이다.

## 아줌마, 색으로 다시 태어나다

문화집단 열혈지구, 흥놀이 참가자 모집

문화예술단체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2018 흥(興)놀이 프로젝트 놀이하는 사람들 No 4. 꽃잠마 모놀로그 'what is your true colors?' (이하 흥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흥놀이는 '아줌마'라는 호칭을 들어본 모든 세대의 여성들이 모여 아줌마인칭 대명사의 오만가지 편견을 깨고, 문학, 연극, 인형극, 미술, 영상, 색채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며 나의 진짜 색(true color)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색다른 이야기를 갖게 되며,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획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오



는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성인 여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15명.

문의 010-4860-3859. /이보람 기자

### 심야 보일러 히트펌프

**기존 심야 전기 보일러**  
에너지 효율 93%  
난방능력 100kW

**심야 시스템 보일러**  
에너지 효율 261%  
난방능력 100kW

전기소비 108kW vs 전기소비 38kW + 대기열 소멸 +62kW

### 심야 보일러 1대당 200~250만원 설치비 보조(한전)

저렴한 전기요금  
고효율 인버터 제어로 전기요금을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 대비 전기요금 약 60% 절감시켰습니다.

고효율 인버터 제어  
기존 심야 전기보일러 대비 60% 절감

전기요금 계산 기준 = 소비전력(kWh) × 심야전력(원) 요금 × 10시간/일 × 30일

### 운전 비용 절감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여 등유대비 약 80%, 일반전기 보일러 대비 약 70%, 도시가스 대비 약 60% 이상 절감됩니다.

등유 대비 절감 비용

종류	절감률
등유 보일러	80% 절감
일반 보일러	70% 절감
도시가스 보일러	60% 절감
히트펌프	60% 절감

■ 연료별 발열량 (1KW당) 비용절감율  
\* 등유, LPG는 한국석유공사 (14. 01월 요금 적용)  
LNG는 한국도시가스협회(서울시 기준) 적용  
일반전기는 일반용(간) 저전압 기준 기본요금 반영  
심야전기는 13. 11월 요금 적용  
공기열 전기보일러는 정적난방 기준

업소용(병원, 모텔, 목욕탕 등)

**해드림에너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295 동림B/D 2층  
010-2633-0890

## 평요리 전문 음식점

KBS SBS MBC 방영업소

# 한옥

(생고기) 샤브샤브, 탕, 죽순회, 떡갈비, 물만두, 매생이떡국

대표: 이종대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대환영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 641-1 (담양에서 백양사 IC 방향) **예약필수** ☎ 061) 381-1450